



## 1학년 핵심 목록



### 성경 聖經 [라]Biblia Sacra [영]Holy Bible

가톨릭교회에서는 성경을 계시된 교의의 원천이며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는 원천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과 성전을 통하여 신앙을 이어받은 교회는 성경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정의하며, 성경들의 정경(canon)을 결정한다. 그리고 성전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창설된 이래 존재해 왔던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이다.

#### I. 명칭 “❤️❤️”

성경(Bible)라는 단어는 파피루스의 내피(內皮)를 뜻하는 비블로스(βιβλος)의 축소형으로 본래 ‘책들’이란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 ‘타 비블리아’(τὰ βιβλία)에 해당하는 말이다. 처음에는 ‘책들’이라는 복수 명사로 표기하였지만 후에는 단수 명사를 사용하였다. ‘헤 비블리아’(ἡ βιβλία)라는 낱말이 바로 성경을 가리키는 그리스어 여성 단수 명사인데, 현대 서양어에서 성경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바이블’(Bible) 또는 ‘비벨’(Bibel), ‘비비아’(Bibia)라는 말은 모두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이다.

#### II. 언어 “❤️❤️”

구약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여졌으나, 아주 드물게 몇몇 내용들은 아람어로 쓰여져 있다.(에즈 4,8-6, 18; 7,12-26; 예레 10,11; 다니 2,4-7, 28) 아람어는 유배 시대 이후 사용된 유대인의 구어(口語)로서 히브리어를 대신하게 된 방언이다. 구약성경은 기원전 3세기부터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되었는데, 《아리스테아의 편지》(Letter of Aristeas)에 의하면 팔레스티나의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뽑힌 72명의 율법 학자들이 72일 동안에 모세 오경의 번역을 마쳤다고 한다. 그래서 이 오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을 ‘칠십인 역본’(LXX)이라고 부른다. 신약성경은 고전 그리스어가 사라진 후 통용되던 ‘공통적인 언어’라는 의미의 ‘코이네 그리스어’(κοινή διάλεκτος)로 쓰여졌다.

#### III. 정경화 “❤️❤️”

정경(canon)이란 그리스어 ‘카논’(κανών)에서 유래된 말로 ‘갈대로 만든’ 혹은 ‘갈대같이 곧은’ 어떤 것을 의미하며, ‘규칙’·‘표본’·‘모범’·‘견본’이란 뜻을 갖고 있다.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경으로 권위 있게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정경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한 신앙과 생활의 기준 혹은 규범이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인정하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었던 권위의 표현이다. 정경의 선택 과정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생활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 즉 공동체가 여러 가지 책들을 사용하다가 그중 특정한 책들이 다른 책들보다 더 가치 있다고 깨달아 가는 과정이 곧 정경 형성의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정경화 작업은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의해 ‘위로부터’ 부과된 결정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자라온 것이다. 그러므로 정경화 작업은 원시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공동체 내에 보존되어 온 전승들이 수집·수정·결합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미래 세대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기억되고, 문서로 정착되고, 편집되는 과정을 거쳐 정경으로 보존된 것이다.

히브리어 정경의 경우에는 율법서가 가장 먼저(기원전 400년경) 집성되었고, 8권의 예언서는 기원전 180년경에 집성되었으며, 가장 늦은 시기에 집성된 것은 11권의 성문서였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의 최종적인 정경 작업은 서기 90년경에 열린 얌니아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 IV. 그리스도교 정경으로서의 구약 “❤️👉”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의 유대교는 그리스어로 된 유대교 성경들을 전수받았으며, 이를 문학적인 유형에 따라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스도교 초기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세계에서 통용되었던 칠십인 역본의 중요성은 바로 이것이 초대 교회의 구약성경으로 사용되었었다는 사실에 있다. 이 번역본은 신약성경 안에서 자유롭게 인용되었으며, 때로는 현재 마소라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히브리어들과 상당히 다른 경우에도 인용되었다. 또 히브리어 정경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책들이 칠십인 역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즉 ‘에스드라서’와 ‘므나쎄의 기도’를 제외한 지금의 제2경전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였다. 그리스도교인 들은 얌니아 회의에서 결정된 유대교 정경을 따르지 않다가 종교 개혁 이후(얌니아 정경에 따른)구약·신약·제2경전 등으로 구분하였다.

1534년에 루터는 히브리어 정경의 책들만으로 구약성경을 출판하였고, 나머지 다른 책들은 ‘외경’ 즉 “성스러운 성경과 동일하게 취급되지는 않지만, 읽어서 유용한 책들이다”라는 표제 하에 구약 끝 부분에 분리하여 실었다. 가톨릭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발로, 므나쎄의 기도와 제1·2 에스드라서를 제외한 불가타 역본 구약성경의 정경성을 1548년 트리엔트 공의회 결정으로 재확인하였으며, ‘제1경전’(히브리 정경)과 ‘제2경전’으로 구별하였다.

#### V. 그리스도교 정경으로서의 신약 “❤️👉”

신약의 정경은 30~100년 사이의 원시 그리스도교 문헌에서 구약을 보충해 주는 문헌을 골라 모은 교회의 선집을 말한다. 정경 형성 과정은 367년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오(Athanasius, 297~373)의 편지에서 최종 단계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신구약 성경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즉 복음서 4권, 사도행전, 바오로 서간 14편 (로마서, 고린토1·2서, 갈라디아서, 에페소서, 필리피서, 골로사서, 테살로니카1·2서, 히브리서, 티모테오1·2서, 티토서, 필레몬서), 가톨릭 서간 7편(야고보서, 베드로1·2서, 요한 1·2·3서, 유다서), 요한의 묵시록 등 27권이다. 그 후 신약성경 구성을 명시한 아타나시오와 예로니모의 표준 번역을 시리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4세기 말까지 시리아에서의 정경은 하나로 조화된 4개의 복음서·사도행전·15개의 바오로 서간(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 포함) 등이었다. 그러다가 점차 27권의 정경이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공식적인 교회 회의의 선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반의 동의에 의해서였다.

#### VI. 제2정경 “❤️👉”

히브리어 성경에는 빠졌지만 칠십인 역본 성경에 수록된 책들은 가톨릭에서는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 이후 제2정경(deuterocanon, 두 척도)이라고 불렀고,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외경이라고 부르고 있다. 초대 교회 교부들과 트리엔트 공의회에 의해 히브리 정경에 속한 책들처럼 성령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제2정경은, 그리스화된 유대교에 대해 특별한 입장과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일반 적으로 여섯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즉 ‘역사서’(제1에스드라서·마카베오 1서·마카베오 2서), ‘가상적인 역사’(다니엘서 13-14장의 토비트·유딧·수산나·벨과 뱀 이야기), ‘지혜서’(지혜서·집회서), ‘예배서’(므나쎄의기도·다니엘서 3장 24-50절의 이 자리야의 노래와 다니엘서 3장 51-90절의 세 젊은이의 노래·바룩서), ‘서신’(바룩서 6장), ‘잡문집’(에스텔서에 추가된 ‘역사적인’ 일화·서신·기도문·꿈 해석·정당성의 주장) 등이다.

#### VII. 장(章)과 절(節) “❤️👉”

탈무드 시대 이전의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읽기 쉽도록 율법을 ‘파라쇼트’라는 부분으로, 예언서들은 소위 ‘합타로트’(haptarot)라는 유사한 부분들로 대략 구분하였다. 또한 현재의 절들에 상응하는 ‘프슈킴’이라는 소규모의 구분도 하였다. 장의 구분은 훨씬 후대에 이루어졌는데, 카로의 후고(Hugo de Caro) 추기경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켄터베리의 랭턴(Stephen Langton, 1150~1227) 대주교가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이것이 불가타 역본에 채택 되었고, 나탄(R. Nathan, 1440)이 이를 히브리어 성경에 적용하였다.(Bleek, Keil) 불가타 역본에 절 표시가 이루어진 것은 1558년이었고, 신약의 경우 인쇄업자였던 에티엔(Robert estienne, 1503~1559)의 1551년판 신약성경에 처음 등장하였다. 그는 파리에서 리용으로 급히 여행하던 중, 구분된 장의 거의 모든 구절에 번호를 표기하였다고 한다.



## 구약성경 舊約聖經

[라]Vetus Testamentum [영]Old Testament

구약과 신약은 그리스도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명칭이다. 유대교에는 오직 구약에 해당하는 '(성)경'(영어식으로는 Bible)만이 있을 따름이다. 곧, 시나이의 계약과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전을 '옛' 것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약과 이를 중심으로 한 경전을 '새' 것으로 이해하고, 동시에 구약과 신약을 한 성경의 두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구약·신약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경전을 성경(聖經)이라 부르는데, 이 책(들)이 지니고 있는 성성(聖性)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기록함은 하느님의 고유 특성이다.(이사 6장) 성경의 기록함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유래한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과 행적을 담고 있다. 이 말씀과 행적은 한 특정 대상, 곧 그가 뽑은 백성을 향한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 은혜의 신비는 한 인간을 다른 인간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그를 진정한 그 자신으로 만드는 데 있다. 영감의 은혜 역시 성경 작가들을 각자 고유의 개별성과 역사성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경은 결국 하느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 된다. 인간적 언어로 표현된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성령의 영감에 대한 믿음이 그리스도교의 경전화 작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 곧, 영감에 의하여 쓰여진 책들만이 경전에 속하며, 경전은 영감에 그 기초를 둔다는 것이다.

### I. 구약의 경전 “❤️❤️”

책으로서의 구약은 외형상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집(全集)이다. 이스라엘과 이를 계승하는 유대주의에서 천여 년 동안에 이루어진 문서들을 한데 모은 책이다. 그 안에는 한 종류의 문학만이 들어 있지 않고, 한 민족이 창작해 낼 수 있는 온갖 유형의 문학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성경이 유대인들의 '도서관'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하겠다. 이는 구약의 이해에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구약의 다양성을 어떤 공통분모 하나로 묶는다거나, 어떤 해석학적 대표 개념(예를 들면 율법, 역사 또는 예언)으로 총괄할 수는 없다. 구약의 다양한 문학 유형은 그 유형에 걸맞게 이해되어야 한다. 예컨대 민담을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현대적 의미의) 역사로 파악한다면, 예전의 경험이 말하는 바와 같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구약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선집(選集)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창작 또는 기록한 문서들 중에서 선별하여 모은 전집이다. 그 구체적인 한 예로, 열왕기와 역대기 저자들이 언급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조실록을 들 수 있다. (1열왕 14,19,29; 15,7,31; 2역대 27,7; 28,26 등; 참조 : 1역대 29,29-30; 2역대 9,29) 열왕기와 역대기를 저작할 때 성경 작가들은 현존하는 왕조실록이나 다른 기록들을 경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단순히 기존의 문서를 답습하려고 하지 않고 이와는 다른 관점과 기준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다. 곧,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이 부분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도 해당된다. 천여 년 동안에 걸쳐 형성되고, 오랜 구전의 시대를 거쳐 글로 정착된 구약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다. 과거의 것들을 말과 글로 전하고, 이를 저작·수집·편찬하는 과정에서 성경 작가들 또는 전승가들은 단순히 과거의 민족적·종교적 유산들을 전수·전달하지 않았다. 과거의 것들을 각 시대의 '오늘'이라는 기준에서 미래를 향한 '오늘'을 위하여 성경의 형성과 관계되는 그 모든 작업을 이루어 낸 것이다.

## II. 구약의 이해 “❤️❤️”

이미 예수에게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구약은 신약과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긴장 관계 속에 자리한다. 같은 문서들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일한 성경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으로 이해한다는 사실에서도 이 성경의 양면성과 다의성(多義性)을 엿볼 수 있다. 유대인들의 경전으로서 구약은 신약에 대하여 비연속성과 독립성을 지니는 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약으로의 연속성과 종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구약은 이들에게 그 시초부터 이해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이미 예수에게서 시작한 구약의 주요 내용인 율법과 메시아에 대한 이해의 갈등 참조) 물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론을 적립하지는 않는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따른 구체적인 삶 속에서, 신약의 경전이 확립되기 이전에 구약을 유일한 성경으로 받아들였고, 자기들의 믿음에 의거하여 이해하였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약속과 이행, 예언과 성취, 예형(豫型, **type**)과 대형(對型, **antitype**), 우의법(寓意法, **allegory**), 또는 구원의 역사라는 해석학적 관점으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정립하고, 이러한 관계 아래에서 구약을 이해하였다. 관점의 다양성은 구약 자체의 다양성에 기인한다. 구약이라는 거대한 복합체가 주님(Kyrios)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주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바라보고 이해하는 구약의 관점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바탕인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이고, 관점들은 상대적이다. 각 관점은 항상 자기의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 한 관점이 다른 관점을 대치할 수 없고, 단일체이면서도 복합체인 구약을 총괄할 수 없다. 새로운 여건이 조성되는 시대에 따라 보완되고 보충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을 성경으로서 자기들의 ‘오늘’을 위하여 경청하고 봉독할 수 있는 근거는 최종적으로 하느님께 있다. 구약은 고대 이스라엘의 ‘그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과 당신 백성 사이의 관계에서 생성되었다. 이 구약은 또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경청되고 봉독된다. 그래서 하느님과 과거 그들의 관계, 그리고 하느님과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사이에는 필연적인 유사성이 있다. 이 유사성은 하느님의 동일성에 바탕을 둔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며, 그는 다시 그리스도인들의 하느님이다. 결국 하느님은 옛날의 그들을 통하여 오늘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성경 - 여기에서는 일차적으로 구약을 지칭한다. - 은 모두 하느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논박하고 바로잡고 그리고 의로움을 위해 교육하는 데 유의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사람이 유능하고 온갖 선한 일을 위한 완전한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2티모 3,16-17; 참조 : 로마 15,4; 1코린 9,10; 10,11; 1베드 1,12).

(출처 : 한국 가톨릭 대사전 - 한국교회사연구소)





# 1. 천지창조



## 창세기 創世記

### I. 창세기 입문

창세기는 오경의 첫 번째 책이다. 이 책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것처럼 세상의 기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시는 하느님 활동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러한 창세기는 토라의 일부를 이루면서도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 그리고 신앙인들이 자기들의 선조로도 받아들이는 이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하여 창세기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며, 유대 민족과 그리스도의 교회와 더불어 온 인류와 관련되는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창세기는 선조들의 생애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전하는데, 이것들은 하느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준비할 목적으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의 역사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배열되어 있다. 이는 선조들의 이야기 앞에 나오는 일종의 서론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선론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세상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 배치시키면서, 성경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설화들을 담고 있다. 창조, 아담과 하와, 노아의 홍수, 바벨탑 등, 인류의 지상여정 그리고 그들의 활동과 실패에 대하여 인상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 II. 창세기 구조

창세기는 통상 두 부분으로 나눈다. 곧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살게 된 인류의 시작을 다루는 창세 1-11장과 선조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창세 12-50장이다. 이 두 번째 부분은 다시 아브라함(12-25장), 이사악과 특히 야곱(26-36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37-50)에 대한 세 개의 서로 이어지는 설화들로 세분된다. 이를 ‘중적’인 구분이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 구분은 창세기의 내용을 말해 주기 때문에 편리한 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구분, 곧 성경의 이 첫 번째 책이 창세기 50장을 넘어서는 여러 문학적인 지층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는 횡적인 구분을 선호할 수도 있다. 사실 현재의 창세기는 야훼계, 엘로힘계, 사제계라 불리는 여러 문학적인 지층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서로 중첩되기는 하였지만 오경 전체를 통해서 다시 발견할 수 있다.

<구약성경 새번역 7 창세기 참조>

### III. 참고사항

#### 1. 야훼계

구약성경을 서술하는데 있어서 하느님의 이름을 야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야훼스트 문헌이라고 함, 장면서술과 인물묘사가 사실적으로 표현함.

#### 2. 엘로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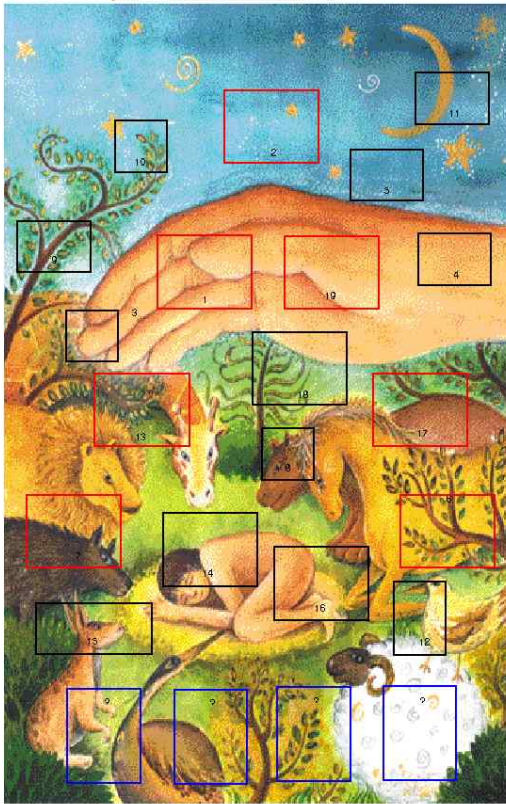
하느님의 이름을 엘로힘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생긴 명칭, 서술방식이 윤리적이고 교훈적임.

#### 3. 사제계(=제관계)

문헌 용어가 추상적이며, 판에 박힌 표현을 사용함. 계보를 많이 사용하며, 제사의식적인 문체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며, 연대기적인 정확성을 좋아한다.



## 1. 천지 창조



### 학습목표

- 구약성경 중 천지창조에 대해 알 수 있다.



### 진행방법

- 그림에 있는 번호 순서대로 하나씩 넘기면서 교사가 안쪽에 있는 글을 읽어주고 따라 읽도록 한다.
-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읽도록 지도하여도 무방하다.
- 모든 숫자를 넘긴 후 아래에 있는 문제칸을 넘겨 문제를 풀며 다시 성경구절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 문제를 풀고 난 후 보너스 문제를 풀도록 한다. 보너스 문제는 다른 부분은 모두 덮고 문제에 해당하는 번호만 넘겨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
- 보너스 문제까지 풀고 난 후 성경 구절을 외울 수 있도록 한다. 교사의 확인에 따라 안쪽에 색칠을 하도록 하여 본당 행사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 문제풀이

- ▶ 해와 달은 몇 번에 숨어 있나요?  
- 10번과 11번
- ▶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나요?  
- 빛
- ▶ 16번에는 어떤 말씀이 들어 있나요?  
-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 ▶ 하느님은 몇 일때 쉬셨나요?  
- 일곱째 날



### 보너스문제

- ▶ 붉은색 상자를 연결하면 人(사람 인)자가 나온다. 학생들과 함께 글자를 만들어보세요.



### 주요단어

- ▶ 창조하다: '창조하다' 라는 히브리어 낱말은 하느님 행동의 비범한 성격을 강조한다. 이 낱말은 당시 백성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시는 그분의 행동을 가리키기 위해서도 사용된다(이사 43,1-15). 이러한 하느님의 행위는 성경과 고대 근동의 문헌에서 '만들다, 날다, 빛다' 등과 같은 용어로 표현된다.
- ▶ 하느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연현상을 지배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이다(시편 29). 십계명과 계시된 율법 토라 역시 마찬가지이다(신명 30,11-14). 말씀은 또한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하느님의 행동(이사 40-55), 인간 사회 안에 자리 잡은 하느님 지혜의 현존을 나타낸다(잠언 1-9).
- ▶ 영: 입김, 열, 바람 등으로 옮길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은 인간과(창세 6,3) 모든 생물에(시편 104,30)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이 "영"이 태초의 거대한 물과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생명이 태동하지 않은 것이다.
- ▶ 빛: 첫 번째 피조물(시편 104, 2)인 빛은 단순히 가시적인 광채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 기쁨의 빛이 되기도 한다(이사 9,1; 60,19-20; 요한 8,12).
- ▶ 궁창: 단단한 궁륭으로서, 고대 근동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단단하면서 거대한 종처럼 생긴 하늘이다. 이것이 하늘 위의 물을 막고 있으며, 열리면 홍수가 터지는 것이다(창세 7,11)